일 주 문



염불철야수행학림

정념 평창 월정사 주지 스님은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2박 3일간 염불철야수행학림 '월래, 괜찮아'를 진행한다. (033)339-6777



문화재사업 '사시락락'

정도 보은 법주사 주지 스님은 8월 19일 입재를 시작으로 매월 셋째 주 토요일마다 문화재 활용사업 '사시락락'을 진행한다.



인천 연수구 아카데미 강연

혜민 마음치유학교장 스님은 8월 29일 오전 10시 인천 연수구 주최 '제64회 행복나눔 연수구 아카데미'서 '행복'을 주제로 강연한다.



태고종 대전종무원장 취임

법안 논산 안심정사 주지 스님은 8월 12일 대전 선샤인호텔에서 태고종 대전교구 제20대 종무원장으로 취임했다.



종로노인福 증축 완공

정관 종로노인종합복지관장 스님은 8월 25일 오전 10시 1년 8개월간의 공사를 마치고 수평증축 완공식을 개최한다.



8재계수계실천대법회

윤기중 조계종 포교사단장은 9월 9~10일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서 '제15회 8재계수계실천대법회'를 봉행한다.

현성 스님, 어르신 삼계탕 공양



서울 현성정사 주지 현성 스님(도선사 조실)은 8월 11일 논골문화원에서 지역어르신 100여 명을 초청해 삼계탕 공양을 올렸다. 현성 스님은 서울구치소와 서대문구 관내 독거어르신 돕기 등을 꾸준히 진행해 오고 있다. 현성 스님은 "어려운 이웃들을 불자들이 조금씩 돌아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바로 잡습니다〉 본지 1160호(8월 16일자) A3면에 보도된 '강제징용 희생자 유해 봉환' 기사에서 신광 스님 소속사찰을 **'일산 삼학 법보사'**로 바로잡습니다.

"목사·신부와 함께 당신의 고민 듣습니다"

Interview

3인 3색 토크콘서트 나서는 진명 스님



스님-목사-신부 다양한 주제로

종교·주제 관계없이 위로 목적

8월 28일 AK 플라자 문화센터

"종교 화합은 우리 모두가 한마음으로 바라는 겁니다. 세 종교가 함께 화합해 대중의 고민을 듣고 위로해주고자 합니다. 신앙 얘기뿐 아닌,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모든 분야의 이야기를 다루려고 합니다."

조계종 前문화부장 진명 스님이 목사, 신부와 함께 3인 3색 토크콘서트를 나선다. 진명 스님은 김진 목사, 홍창진 신부와 8월 28일부터 전국을 돌며 '3인 3색 토크콘서트'를 진행한다. 힘들어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불어넣고 위로하겠다는 취지다.

진명 스님은 "우리 셋이 작당해서 하게 됐다. 신부님과 tvN '오 마이 갓' 프로그램을 함께 하던 중 신부님이 먼저 제안을 해왔다. 또 목사님이 김진 목사라는 말에 안심이 돼서 하겠다고 했다"고 토크콘서트 동참 계기를 밝혔다. 스님은 홍창진 신부와 함께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연을 맺었다. 김진 목사와는 법정 스님을 모시던 20대 때부터 오며 가며 보고 지낸 사이다. 진명 스님은 "우리 셋은 실제로도 아주 친하다. 그만큼 토크 콘서트에서도 호흡이 잘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 종교의 성직자가 함께 참여하는 이번 토크콘서트에는 남다른 목적과 의미가 있다. 진명 스님은 "종교 화합은 우리 도량 안에서만 외친다고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용기를 냈다"며 "요즘 시대가 어려워 힘든 일을 겪는 대중이 많다. 그런 분들과 마음을 함께하고자 했다. 종교를 뛰어넘어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궁극적 목표"라고 강조했다.

세 종교가 함께하는 첫 토크콘서트인 만큼 주제 선정 역시 쉽지 않았다. 토크콘서트에서 다루는 주제에 대해 진명 스님은 "처음으로 시도하는 토크콘서트기에 구체적으로 설계된 것은 아직 없지만 첫날엔 '욕심'에 대해 이야기하기로 했다. 진행해보고 이후 주제를 달리할지, 계속 이 주제로 진행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님은 또한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예민하게 느끼는 부분까지 이야기할 것이다. 고민과 관련된다면 어떤 것이든 다룰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타 종교에 비해 유독 보수적이라는 평이 많은 불교. 스님이 목사, 신부와 함께 토크콘서트를 진행한다고 했을 때 도반들의 반응은 부정적이지 않았을까. 진명 스님은 환하게 웃으며 "내 도반들은 다들 60세에 가깝거나 60세가 넘었는데 하나같이 내게 '잘 해보라!'고 하더라. 이 토크콘서트는 우리 종교인들이 앞으로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기 때문이다. 그 말에 큰 힘을 얻었다. 앞으로도 종교화합의 좋은 길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토크콘서트는 8월 28일 오후 1시 반 경기 평택시를 시작으로 △30일 오후 1시 서울 구로구 △9월 7일 오전 11시 강원 원주시 △9월 19일 오후 2시 반 경기 수원시 △9월 20일 오후 2시 40분 경기 성남시 각 지역 AK플라자 문화센터에서 진행된다. **박진형 수습기자**

故힌츠페터 부인, 진관사서 평화 찾다

8월 11~12일 서울 진관사

템플스테이 참여

영화 '택시운전사'가 연일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하며 개봉 열흘 만에 600만 관객을 돌파한 가운데, 영화 속 독일기자의 실제 주인공 故위르겐 힌츠페터의 부인 에델트라우트 브람슈테드(80)가 서울 진관사를 찾았다.

에델트라우트 브람슈테드는 지난해 세상을 떠난 남편을 대신해 '택시운전사' 관람을 위해 지난 8일 한국을 찾았다. 이튿날인 9일 영화 '택시운전사'를 관람한 후 눈물을 펑펑 쏟은 힌츠페터 부인은 11일 서울 진관사를 찾아 명상하며, 남편에 대한 그리움과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달랬다.

힌츠페터 부인은 "영화가 매우 감동적이었다. 내면은 강하고 외면은 부드러웠던 생전 남편의 모습이 잘 표현됐다"면서 "남편과 수십 년 전 한국의 한 사찰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오늘 이렇게 절에서 하루 묵게 되니 감회가 새롭다"고 말했다.



진관사서 참선하는 힌츠페터 부인(사진 오른쪽)

힌츠페터 부인은 그동안 한국에 8차례 방문했지만 사찰에서 템플스테이를 하는 것은 처음이라면서 들뜬 마음을 전했다.

"그저 관광을 위해 왔다면 사찰문화를 체험할 시간이 없었을 텐데 오늘 진관사에서 템플스테이를 하게 되어 매우 뜻 깊습니다. 인생에서 한 번 밖에 없을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힌츠페터 부인은 특히 진관사 선우 스님과 함께한 참선 시간 동안 복잡한 생각들을 비워낼 수 있었다면서 머릿속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아 기쁘다고 웃어보였다.

"한국 사찰은 굉장히 조용해 내면의 평화를 찾는데 매우 적합한 장소인 것 같습니다. 또한 산속에 자리 잡아 자연의 일부에 들어와 있는 듯 느껴집니다."

힌츠페터 부인은 이날부터 1박2일간 휴식형 템플스테이에 임하며 한국의 전통사찰문화 체험 기회를 갖는다.

한편 故 위르겐 힌츠페터는 독일의 ARD방송국 카메라 기자로, 1980년 5월 19일 일본 도쿄의 라디오 방송에서 소식을 접하고 광주로 향한다. 계엄군에 의해 검문소에서 저지당하자 그는 외국 회사 직원으로 위장, 광주에 진입한 후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끔찍한 민낯을 카메라에 담아 전 세계에 알렸다.

영화 '택시운전사'는 위르겐 힌츠페터와 동행한 택시운전사 김사복의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됐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수불 스님, 이옥선 할머니 위문



2015년 대원상 수상금을 위한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위문금으로 낸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이 2년 만에 이옥선 할머니를 만났다.

수불 스님은 8월 15일 경기도 광주 참조은병원에 입원 중인 이옥선(90) 할머니를 방문해 금일봉과 과일바구니를 전달했다. 2년 전 수불 스님은 광주 나눔의집을 방문해 "앞으로 깊은 관심을 갖고 열심히 돕겠다. 또 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윤호섭 기자**

연등사 생전예수재 및 백중천도재



안성 연등사(주지 도심)는 8월 6일 극락전에서 합동 생전예수재 및 백중 천도재를 진행했다. 이날 재에는 법주 고암 스님(성도원 주지)및 영산재보존회장 구해 스님 등 스님과 100여 대중이 참석했다. 고암 스님은 "100가지 아는 것보다 1가지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세상을 살아가면서 근심, 질투 버리고 바른 마음, 지혜로운 생각으로 지혜를 닦자. 정법을 기둥 삼아 큰 생각으로 살아가자"고 설했다.

연등사 주지 도심 스님은 "어려운 이웃들에게도 나눔의 마음을 잊지 말고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대자비의 자비 마음을 간직하자"고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일현 스님 열반 26주기 추모재



공주 마곡사(주지 원경)는 8월 7일 마곡사 관음전에서 한국불교 최고 어장으로 평가받는 취담당 일현 스님 열반 26주기 추모 다례재를 개최했다.

이날 추모재에는 조계종 원로의원 철웅 스님과 마곡사 주지 원경 스님 등 문도 스님 50여 명이 동참했다.

노덕현 기자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2017년도 남경 의대(중의학) 학생 모집



혜인스님
한국총장

조기 유학생 모집
어학단기반 모집
- 초 6년 ~ 고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c.co.kr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❶ 특차모집(남경중의학대학)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100명	• 최종학력증명 1부 • 최종성적증명 1부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부
석사과정	3년	50명	
박사과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경제,경영,무역,식품,금융 등

❷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주지스님 추천자

❸ 학교소개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제약공장,교육병원12,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 가능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학자금 대출 가능
- 서울시내 대학 편입 가능
-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❹ 전형방법 및 모집기간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모집기간 : 2017년 8월 31일까지 수시전형

❺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 한국 사무처 –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불교조계종 교학과에서 직접 교부 (지방은 우편으로 배부 가능) www.njutcm.co.kr
- 접수 : 불교조계종 한국분교(빠른 접수 가능)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논현동 2-13 2층)
- 제출서류 특별전형 : 최종학력증명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 기 타 어학연수 및 조기유학에 관한 문의는 불교조계종 국제교류처(02-511-1080)으로 문의 바람.

❻ 학비(등록비 및 보험료 포함)
- 학사 과정 : 매년 25,800위안
- 석사 과정 : 매년 33,800위안
- 박사 과정 : 매년 41,800위안

■ 남경중의약대학(南京中醫藥大學)
南京市仙林大道138號(210023)
138 Xianlin Rd., Nanjing 210023, P.R.China
E-mail : overseas@njucm.edu.cn
Website : www.njucm.edu.cn

■ 한국상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교육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
- 교학처 : (02)511-2026, 2027 Fax (02)511-2028
- 총장실 : (02)511-1080

http://www.njutcm.co.kr